번역학연구
2013년 겨울 제14권5호

헤드-테일의 번역 양상: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중심으로

장 영 준
(중앙대)

1.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이른바 헤드-테일(head-tail) 현상이라고 알려진 구문이 번역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1] 헤드-테일 현상이란 명사구를 먼저 쓰고, 문미에 이를 받는 대명사를 다시 쓰거나, 그 반대로 대명사를 먼저 쓰고, 문미에 고유명을 되풀이하는 현상을 말한다. 다음을 보자.

(1) a. My friend John, he is coming!
b. He is coming, your friend!
c. I finally got it, the package from the school.

1) 헤드-테일(head-tail)이란 용어는 우리 학계에서 아직 그 번역어가 정착되지 않았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이를 머리말-꼬리말이라고도 하는데, 본고에서는 우선 원어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또한 head는 preface, tail은 tag라고도 불린다.

www.kci.go.kr

(1a)에서는 명사구인 My friend John이 먼저 오고, 그것을 대명사인 he로 되풀이하고 있다. 이를 헤드(head) 혹은 서언(preface)라 한다. (1b)에서는 대명사 He가 먼저 나오고, 이를 다시 your friend로 받고 있다. 이를 테일(tail) 혹은 꼬리말(tag)이라 한다. 헤드는 청자로 하여금 특정 사물에 주의를 집중하게 만들고, 이를 다시 대명사로 쓰는 것인데 반해, 테일은 문장 구조에 대명사를 사용한 후, 그것의 지시물을 명사구로 명시화하는 기능이 있다. 헤드와 테일은 모두 문장의 기본 구조를 벗어나는 요소로, 구어체에서 자주 발견된다.

헤드-테일 구문은 영어뿐 아니라 프랑스어나 독일어 등에서도 자주 나타나지만, 한국어나 일본어에서는 흔히 나타나지는 않는다. 물론 헤드-테일 구문이 한국어에서 완전히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음을 보자.

(2) a. 너 그 사람 만났어, 미팅에서 만났던 사람 말이야?
b. 저것이 또 왔네, 네 친구 철수 놈 말이야.

위 예문에서 보듯이, 한국어에서도 대명사 혹은 대명사류가 먼저 나타나고, 후에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명사가 올 수 있다. 즉, (2a)에서는 '그 사람'이란 대명사적 표현이 다시 '미팅에서 만났던 사람'으로 되풀이도고 있고, (2b)에서는 '저것'이란 비하적인 대명사 표현이 '네 친구 철수 놈'으로 되풀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어에서도 헤드-테일 구문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는 구어체에서 왕성하게 사용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프랑스 소설인 마르셀 프루스트(Marcel Proust)의 *A la Recherche du Temps Perdu*(1913)의 한국어 번역본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1998, 김창석 역)를 보면 프랑스어 원문(Source Text, ST)의 헤드-테일 구문이 모두 일반 구문으로 전환되었음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어 ST의 헤드-테일 구문이 영어 번역본(Target Text, TT)과 한국어 TT에서 각각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영어 TT에서는 ST의 헤드-테일 구문이 유지되고 있는 반면, 한국어 TT에서는 모두 일반 구문으로 전환되었다. 물론 번역자가 헤드-테일 구문을 모두 무시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에서도 헤드-테일을 살린 사례가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ST과 영어 TT의 헤

www.kci.go.kr

드-테일 구문이 한국어 TT에서는 모두 일반 문장으로 전환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구문 전환의 이유가 번역가의 개별적 특성 때문인지, 한국어의 구문적 특성 때문인지, 혹은 이중번역으로 인한 문제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어 역시 헤드-테일 구문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를 한국어의 구문적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는 일단 헤드-테일 구문이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삼는다.[2)]

2. 헤드-테일 구문의 특성

헤드-테일 현상은 서론에서 간단히 살펴본 것과 같이, 대명사 표현을 고유명으로 되풀이하는 구문이다. 대명사-명사의 출현 순서를 볼 때, 헤드-테일 구문은 역방향 혹은 역행 대명사화(backward pronominalization)와 유사하게 보인다. 다음을 보자.

(3) a. John goes to school when he gets up.
b. When he gets up, John goes to school.

위 (3a)에서 대명사 he는 고유명사 John과 지시 대상이 같다. 즉, 이들은 공지시적이다. (3a)에서 보듯, 영어에서는 고유명사가 선행하고, 공지시적인 대명사가 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순방향 혹은 순행 대명사화(forward pronominalization)이라 한다. 그러나 (3b)에서 보듯이, 대명사화는 역방향으로도 허용된다. 즉 고유명사가 주절에 나오고, 공지시적인 대명사가 선행하는 종속절에 나타나는 것이다. 역행 대명사화는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헤드-테일과는

2) 익명의 심사자는 다양한 상황에서 헤드-테일(head-tail) 현상이 처리되는 것을 유형화함으로써 보다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본고의 일차적인 목적이 주어진 작품의 번역에서 헤드-테일 구문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이 작업은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되어, 헤드-테일의 일반적 유형화에 대한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www.kci.go.kr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조적, 의미적으로 구별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헤드-테일과 역행 대명사화 구문을 비교해보자.

(4) a. He is coming, your friend!
b. When he gets up, John goes to school.

첫째, 역행대명사화는 대명사가 종속절이나 종속 부사구에 포함된다. 반면에 헤드-테일은 주로 대명사가 주절에 포함되고, 공지시 명사는 일종의 동격 명사로 나타난다. 둘째, 역행 대명사화는 의미적 제약이나 특정한 의미관계 없이,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주절과 종속절의 공지시적 명사가 있을 때, 종속절의 공지시 명사가 기계적으로 대명사화하는 현상이다. 그러나 헤드-테일에서는 주절의 대명사가 선행하고, 그와 공지시적인 명사구가 일종의 부가어로 나타난다. 셋째, 헤드-테일은 일반적으로 구어체에서 나타나는 반면, 역행 대명사화는 문어체에서 나타난다. 넷째, 헤드-테일은 화자와 청자 사이에 감정이입(empathy) 관계가 전제되는 반면, 역행 대명사화는 그러한 제약이 전혀 없다. Kuno(1987)의 감정이입 이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대화는 아이와 엄마 사이에서는 가능하지만, 낯선 사람 사이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3)]

(5) Speaker A: (getting home) Mom, I got it.
Speaker B: Congratulations!

위 예문에 사용된 대명사 it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오직 친밀한 관계에서만 파악될 수 있다. 가령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집에 뛰어 들어오면서 이러한 문장을 말했다고 가정해보자. 아이에게 무관심한 엄마라면 아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반면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아는 엄마라면, 아이가 처음부터 it와 같은 대명사를 사용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비록 선행하는 대화가 없이도, 이러한 대화가 가능한 이유는 아이와 엄마의 관계처럼 암묵적인 맥락이 있기 때문이다. Kuno(1987)는 이를 감정이입이론(empathy theory)로 정립한 바 있다.

3) 예문은 Kuno 교수의 수업시간(1992, 가을) 자료에서 인용한 것이다.

www.kci.go.kr

만일 두 화자가 서로 모르는 사람이거나 비록 아는 사이라 해도 전후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사이라면, 화자 A가 섣불리 대명사 it를 사용할 수는 없다. 만일 화자 B가 대명사 it의 내용을 모른다면 B는 What? 등과 같은 질문을 할 것이고, A는 the first prize와 같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역행 대명사화에서는 이러한 감정이입 관계가 전혀 필요 없이, 공지시 명사가 기계적으로 대명사화된다. 그러나 헤드-테일 구문에서는 화자가 일단 감정이입을 전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명사를 먼저 사용하게 된다. 만일 화자의 입장에서 청자가 그 대명사의 지시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생각이 되거나, 혹은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겠다는 판단이 서면 화자는 고유명사나 명사구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테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테일은 헤드에 대한 동격명사이기도 하고 부가어(afterthought) 이기도 하다. 다섯째, 역행 대명사화는 주절과 종속절 사이에서도 발생하지만, 등위구문에서도 나타난다. 다음을 보자.

(6) a. Either he eats his supper or Johnny goes to bed. (Langendoen, 1969)
b. Not only did she insult me, but Mary also accused me of insulting her! (Langendoen, 1969)
(7) a. Help him, and John will be thankful. (Hinds and Okada, 1975)
b. Help him, or John will hate you. (Hinds and Okada, 1975)
(8) a. Penelope cursed him and [then] slandered Peter. (Hinds and Okada), 1975)
b. He has a lot of talent and Peter should go far. (Hinds and Okada, 1975)
c. She is almost blind and I won't fee safe on the road if you allow this woman to drive. (Hinds and Okada, 1975)

위 예문들은 전통적으로 역행 대명사화의 예로 제시되는 구문들이다. 여기서도 볼 수 있다시피, 역행 대명사화는 종속절에서뿐 아니라 등위절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복되는 말이긴 하지만, 헤드-테일은 이와는 달리 되풀이되는 명사구가 동격어로서 혹은 부가어로서 나타날 뿐, 그것이 종속절이나 등위절의 구성성분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얼핏, 위 구문들이 헤드-테일과 유사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 구문들은 감정이입이나 동격어 혹은 부가어와는 근본적

www.kci.go.kr

으로 다르다. 또한 해드-테일 구문은 대화체의 속성이다. 감정이입은 기본적으로 두 사람간의 대인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대화체 구문에 헤드-테일 구문이 자주 출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의 목적이 헤드-테일 구문이 번역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가를 살펴보려는 것이므로 구문의 특성을 더 이상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다.

3. 번역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의 헤드-테일 처리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매우 방대한 저서이다.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발행된 원본은 2911쪽에 달하고, 영어 번역본 역시 3160 쪽에 이른다. 한국어 번역본은 총 10권으로 출판되었다. 본고에서는 제1권 *Du côté de chez Swann*(1913)에 등장하는 헤드-테일 구문들만을 분석하고자 한다. 앞 절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헤드-테일 구문이 구어체의 특성이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ST에 쓰인 헤드-테일 구문이 모두 대화체의 일부로 나타나고 있다. 제1권만을 조사한 결과, ST에는 총 13번의 헤드-테일 구문이 등장한다. 영어 TT에서는 이 중 8개의 헤드-테일 구문을 살려서 번역했고, 한국어 TT에서는 단 한 번만 테일 구문을 살려서 번역했다. 우선 다음 예문을 보자.

(9) a. ST: Mais Mme de Crécy, voilà une petite femme qui a l'air intelligente, ah! saperlipopette, on voit tout de suite qu'elle a l'œil américain, celle-là! Nous parlons de Mme de Crécy, dit-il à M. Verdurin qui s'approchait, la pipe à la bouche. (4871)

b. 영어 번역: "But Mme de Crecy! There's a little woman who knows what's what, all right. Upon my word and soul, you can see at a glance she's got her wits about her, that girl. We're speaking of Mme de Crecy," he explained, as M. Verdurin joined them, his pipe in his mouth. (p.286)

c. 한국어 번역: "한데 크레시 부인을 보시오. 총명스러운 귀여운 여인이죠. 암! 그렇지, 한눈에 아메리카 사람의 눈을 하고 있는 걸 알죠, 저 여인 말입니다! 우리는 크레시 부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는, 입에 골통대를 물고 가까이 온 베르뒤랭 씨에

www.kci.go.kr

게 말했다. (p.115)

위 예문을 보면, ST에서 테일로 쓰인 celle-là는 영어 TT에서 that girl로 번역되었다. 테일의 사용은 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일정한 정도의 감정적 공감대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전제하는 일종의 감정이입 장치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헤드-테일 구문이 구어체에서 자주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ST의 대명사를 가능하면 영어에서도 대명사로 그대로 살린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테일 구문은, (9c)에서 보다시피 한국어 TT에서도 "저 여인 말입니다" 라는 테일로 번역되고 있다. 이러한 예문을 볼 때, 이 작품의 한국어 TT에서는 테일 구문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4] 다음을 보자.

(10) a. ST: — Vous croyez qu'elle en mourrait, votre mère, s'écria durement MmeVerdurin, si vous ne dîniez pas avec elle le jour de l'an, comme en province! (3523)[5]
b. 영어 번역: "You don't suppose she'll die, your mother," exclaimed Mme Verdurin bitterly, "if you don't have dinner with her on New Year's Day, like people in the provinces!" (p.207)
c. 한국어 번역: "촌뜨기처럼, 초하룻날 모친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때문에 모친이 돌아가실 줄 아시나 봐!" 하고, 베르뒤랭 부인은 쏘아붙였다. (p.10)

위 예문에서 ST은 헤드인 elle을 문장의 끝에 다시 votre mère로 되풀이하고 있다. 테일의 기능이 선행하는 대명사의 내용을 보강해주기도 하고, 강조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도 그러한 기능을 볼 수 있다. 영어 TT에서도 문자 그대로 번역하여 대명사 헤드인 she가 테일 your mother로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4) 익명의 심사자가 지적한 것처럼, 테일 구문을 일반 구문으로 번역한 것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 오는 지는 분명하지 않다. 필자의 조사로는 이 특정 작품에서 테일 구문을 일반 구문으로 전환함으로써, 감정이입이나, 생동감, 원저자의 어투 등이 TT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등가성의 손실이 있다는 것이다.

5) 본 연구에서는 amazon.com에서 구입할 수 있는 Humanis (April 23, 2012) 발행의 킨들 판을 사용하였으며, ST 끝의 괄호 속 숫자는 해당 인용문이 나오는 행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16a)는 총 분량 2911쪽에 달하는 킨들 판에서 3523번째 행에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www.kci.go.kr

번역본에서는 전체 문장이 '그 때문에 모친이 돌아가실 줄 아시나 봐!'란 한 문장으로 변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테일 구문을 살린다면 이 문장은 '그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실 줄 아시나 봐, 당신 모친 말입니다!'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한국어는 소위 핵-후행(head-final)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나 프랑스어처럼 명사 하나만 문미에 두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그러므로 '그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실 줄 아시나 봐, 당신 모친!'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영어의 테일과 한국어의 테일은 이런 점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점을 제외한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국어가 테일 구문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11) a. ST: — Quel charmeur, n'est-ce pas, dit-elle à Swann ; la comprend-il assez, sa sonate, le petit misérable? Vous ne saviez pas que le piano pouvait atteindre à ça. C'est tout, excepté du piano, ma parole ! (3932)
b. 영어 번역: "Isn't he a charmer?" she asked Swann, "doesn't he just understand his sonata, the little wretch? You never dreamed, did you, that a piano could be made to express all that?" (p.231)
c. 한국어 번역: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매혹시키는지, 안 그래요" 하고 부인이 스완에게 말했다. "아주 젊으면서, 그 소나타를 잘 이해하다니요? 피아노로 여기까지 달할 수 있다고는 생각 못하셨을 거예요." (p.41)

이 예문에서도 ST에서는 대명사 il을 먼저 제시하고, 문장의 끝에 le petit misérable을 테일로 제시하고 있다. 이 테일 구문은 영어 번역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즉, 주어 대명사 he를 the little wretch란 테일로 되풀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번역에서는 아예 주어와 테일이 모두 생략되었다. 이는 단순한 구문상의 전환이라기보다, 테일이 제공하는 다양한 의미기능의 손실을 의미한다. ST의 le petit misérable가 제공하는 의미를 모두 누락시킨 것이다. 테일 구문을 살린다면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이 번역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12)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매혹시키는지, 안 그래요" 하고 부인이 스완에

www.kci.go.kr

게 말했다. "그는 그 소타타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그 어리고 가엾은 것이 말이죠?? 피아노로 여기까지 달할 수 있다고는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번역자는 이 예문에 '아주 젊으면서'란 어구를 추가했는데, ST에나 영어 번역본에는 이에 해당하는 말이 없다. 또 다른 구문을 보자.

(13) a. ST: — En effet, alors cela ne doit pas beaucoup vous amuser d'y aller, dit le docteur avec une nuance de commisération ; et, se rappelant le chiffre de huit convives : « Sont-ce des déjeuners intimes ? » demanda-t-il vivement avec un zèle de linguiste plus encore qu'une curiosité de badaud. (4033)

b. 영어 번역: "Upon my word! Then it can't be much fun for you, going there." A note of pity sounded in the doctor's voice; and then struck by the number—only eight at table—"Are these luncheons what you would describe as 'intimate'?" he inquired briskly, not so much out of idle curiosity as from linguistic zeal. (p.236)

c. 한국어 번역: "그럼, 그곳에 출입하시는 게, 과연 별로 재미 없겠군요" 하고 의사는 동정하는 어조로 말했다. 그리고 회식자가 여덟이라는 수효를 상기하면서, "매우 친밀한 오찬이겠군요?" 하고 그는, 실없이 구경하기 좋아하는 사람의 호기심보다 오히려 언어학자의 열의를 갖고서 통렬하게 따졌다. (p.49)

이 예문은 다소 특이하게도 테일이 사람이 아니라 행위이다. 즉, 부정사 d'y aller가 테일로 나오고, 이를 대신하는 대명사 cela가 헤드로 나와 있다. 이는 마치 영어의 가주어 it와 진주어 to-부정사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it 가주어-to-부정사 진주어 구문이 프랑스어에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그렇게 볼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여기서의 cela와 d'y aller 역시 테일 구문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번역본에서도 이를 it ~ to-부정사 가주어-진주어 구문으로 번역하지 않고, 동명사 구문으로 번역하고 있다. 즉, Then it can't be much fun for you, going there.에서 it가 헤드이고, going there가 테일로 쓰이고 있다. 영어에서는 부정사와 달리, 동명사 주어를 외치시켜 가주어 it로 대치하는 가주어-

www.kci.go.kr

진주어 구문을 허용하지 않는다. 위 TT에 쓰인 동명사는 앞에 쉼표(,)를 통해서도 알 있다시피, 진주어 동명사가 아니라 테일로 쓰인 동명사이다. 다음 예문 역시 사물이 테일로 쓰이고 있다.

(14) a. ST: «Ah! lui, ce n'est pas comme toi, c'est une si belle chose, si grande, si jolie, que son amitié pour moi. Ce n'est pas lui qui me considérerait assez peu pour vouloir se montrer avec moi dans tous les lieux publics», Swann fut embarrassé et ne savait pas à quel ton il devait se hausser pour parler d'elle à mon oncle. (5783)

b. 영어 번역: "Ah, yes, he's not in the least like you; it's such an exquisite thing, a great, a beautiful thing, his friendship for me. He's not the sort of man who would have so little consideration for me as to let himself be seen with me everywhere in public," this was embarrassing for Swann, who did not know quite to what rhetorical pitch he should screw himself up in speaking of Odette to my uncle. (p.340)

c. 한국어 번역: "아아! 그분, 당신과는 달라요, 그분이 내게 베푸는 우의란 참으로 멋져요. 크고, 아름다워요! 이목이 번다한 곳에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인정머리 없는 분이 아니란 말에요"라고 말해 왔기 때문에, 스완은 증조부한테 그녀[오데트]에 대한 얘기를 꺼내려면 어떤 가락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ST에서 헤드 ce는 테일 son amitié pour moi로 되풀이 되고 있다. 이 문장은 전형적인 테일 구문으로서, 대명사 주어를 헤드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테일로 제공하고 있다. 영어 번역에서도 헤드인 it는 테일인 his friendship for me로 되풀이되고 있다. 물론 프랑스어와 영어가 근본적으로 인구어에 속하는 동일 계열의 언어라서 번역에서도 문장의 구조를 그대로 살리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어 번역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특성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등가성이란 입장에서 볼 때 의미적 등가성은 유지되었을지 몰라도, 구조적 등가성은 사라진 것이다. 테일이란 구조적 등가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 문장은 아마도 다음과 같이 번역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www.kci.go.kr

(15) 그건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멋진 것이죠, 저에 대한 그분의 우정 말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번역이 더 낫다거나 옳다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다만, 한국어에서도 테일 구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ST의 구조적 특성을 살린다면 이러한 형식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을 뿐이다. 이는 문법적 등가성의 유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테일 구문에서 테일이 반드시 문장 끝에만 오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헤드 바로 옆에 마치 동격명사처럼 되풀이되기도 한다. 다음 예문이 바로 이러한 경우이다.

(16) a. ST: Et puis du moins, ce voyage détesté, ce n'était pas lui, Swann, qui le paierait! – Ah ! s'il avait pu l'empêcher, si elle avait pu se fouler le pied avant de partir, si le cocher de la voiture qui l'emmènerait à la gare avait consenti, à n'importe quel prix, à la conduire dans un lieu où elle fût restée quelque temps séquestrée, cette femme perfide, aux yeux émaillés par un sourire de complicité adressé à Forcheville, qu'Odette était pour Swann depuis quarante-huit heures. (5604)

b. 영어 번역: At any rate it would not be he, Swann, who paid for this loathsome expedition! Ah! If he could only manage to prevent it, if she could sprain her ankle before setting out, if the driver of the carriage which was to take her to the station would consent (at no matter what price) to smuggle her to some place where she could be kept for a time in seclusion—that perfidious woman, her eyes glittering with a smile of complicity for Forcheville, that Odette had become for Swann in the last forty-eight hours! (p.329)

c. 한국어 번역: 그리고 또 아무튼지, 이 타기할 여행의 비용을 댈 사람이란, 나 이 스완이 아니다! ---아아! 만약에 그녀를 가지 못하게 할 수만 있다면! 떠나기 전에 발이라도 삐어주었으면. 그녀를 역까지 태워 가는 마차몰이꾼이, 어떠한 대가라도 좋으니, 잠시 동안 감금해 놓을 곳으로 그녀를, 포르슈빌에게 보낸 한통속의 미소와 더불어 윤기 나는 눈을 한 그 불성실한 여인을, 데리고 가겠

www.kci.go.kr

다고 승낙해준다면, 48시간 전부터 스완에게는 오데트가 그런 여인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p.170-171)

위 예문에서 보듯이, ST에서는 대명사 lui 바로 다음에 Swann을 테일로 쓰고 있다. 여기 쓰인 Swann은 동격명사와는 다르다. 동격명사는 Richard the Lion-hearted, 혹은 John the Land-lost처럼 단일 어구로 쓰이던가, my friend John처럼 설명어구가 피수식어를 선행하는 구조로 쓰인다. 그러나 위 ST에 쓰인 Swann은 대명사 다음에 쉼표(,)로 분리되어 있는 테일로서 동격명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영어 TT은 it would not be he, Swann, who paid for this loathsome expedition!로 되어있다. ST의 구조를 그대로 살려서 대명사 he 뒤에 쉼표를 쓰고 테일인 Swann을 배치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어 번역에서는 3인칭 대명사 he를 1인칭으로 바꾸고 테일 구문도 무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6] 이러한 예문이 ST에는 자주 나온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7) a. En somme, c'était lui, Swann, l'homme à qui elle attachait de l'importance et pour qui elle avait congédié l'autre. (5256)

b. Au moment où on se préparait à partir, il remarqua des conciliabules entre MmeVerdurin et plusieurs des invités et crut comprendre qu'on rappelait au pianiste de venir le lendemain à une partie à Chatou ; or, lui, Swann, n'y était pas invité. (5280)

c. « Tiens, vous ici ! », et lui aurait demandé d'aller la voir à l'hôtel où elle était descendue avec les Verdurin, au contraire si elle l'y rencontrait, lui, Swann, elle serait froissée, elle se dirait qu'elle était suivie, elle l'aimerait moins, peut-être se détournerait-elle avec colère en l'apercevant. (5456)

d. Mais depuis plus d'une année que, lui révélant à lui-même bien des richesses de son âme, l'amour de la musique était pour quelque temps au moins né en lui, Swann tenait les motifs musicaux pour de véritables idées, d'un autre monde, d'un autre ordre, idées voilées de ténèbres, inconnues, impénétrables à l'intelligence, mais qui n'en sont pas moins parfaitement

6) 익명의 심사자는 he를 I로 번역한 것이 오역인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있다. 단순한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번역자의 의도적 전환으로 볼 수밖에 없어 보인다.

www.kci.go.kr

distinctes les unes des autres, inégales entre elles de valeur et de signification. (6476)

e. S'il s'agissait de quelqu'un qui n'était pas indispensable à cette coterie, d'un ministre à cette coterie, d'un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républicain un peu solennel, d'un académicien bavard, le goût s'exerçait à fond contre lui, Swann plaignait Mme de Guermantes d'avoir dîné à côté de pareils convives dans une ambassade et on leur préférait mille fois un homme élégant, c'est-à-dire un homme du milieu Guermantes, bon à rien, mais possédant l'esprit des Guermantes, quelqu'un qui était de la même chapelle. (9337)

위 예문들에서는 모두 대명사 lui라는 헤드 바로 옆에 Swann이란 테일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강조(emphasis)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 번역본에서는 이들 테일 구문을 모두 살리고 있지는 않다. 번역본에서도 이들 테일 구문은 일반 문장으로 옮겨지고 있다. 앞에서 다룬 예문들과는 달리, 아마도 이 구문들이 모두 강조용법의 테일 구문이라서 구조적 등가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ST에는 테일이 아닌데, 영어 번역본에 테일로 전환한 경우도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18) a. ST: Et tandis qu'elle passait, légère, apaisante et murmurée comme un parfum, lui disant ce qu'elle avait à lui dire et dont il scrutait tous les mots, regrettant de les voir s'envoler si vite, il faisait involontairement avec ses lèvres le mouvement de baiser au passage le corps harmonieux et fuyant. (6453)

b. 영어 번역: And as she passed, light, soothing, murmurous as the perfume of a flower, telling him what she had to say, every word of which he closely scanned, regretful to see them fly away so fast, he made involuntarily with his lips the motion of kissing, as it went by him, the harmonious, fleeting form. (p. 378)

c. 한국어 번역: 그리고 그 여신이 그에게 말해야 할 한마디 한마디를,

www.kci.go.kr

> 그가 되씹어야 맛 봐야 할 낱말로 하면서 가볍게 찬찬히, 꽃향기가 나듯이 지나가는 동안, 한편 그 낱말이 그처럼 빨리 날아가는 거을 보고 섭섭해 하면서, 그는 덧없이 사라지는 조화로운 그 모습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입맞춤의 손짓을 보내는 시늉을 하였다. (p.237)

ST을 보면 au passage le corps harmonieux et fuyant는 테일 구문이 아니다. 오히려 이 구절의 한국어 번역인 '덧없이 사라지는 조화로운 그 모습에'가 ST에 가깝게 번역되었다고 할 수 있다. ST과 한국어 번역과는 달리, 영어 번역본은 헤드인 대명사 it를 먼저 쓰고, 테일로 fleeting form을 되풀이하고 있다. 굳이 이 구절은 as it went라는 절로 번역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ST의 어구를 영어 TT에서 절로 바꿈으로서, 전체 문단의 호흡이 길어지고 문장의 복잡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4.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필자는 마르셀 프루스트의『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중, 제1권 *Du côté de chez Swann*(1913)에 등장하는 테일 구문들이 영어 번역본과 한국어 번역본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테일 구문은 총 13회 출현하는데, 영어 번역본에서는 이중 8회에 대해 테일 구문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단 1회에 대해서만 테일 구문을 유지하고 있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번역자는 프랑스어 원전을 저본으로 하여 한국어 번역을 하였다. 따라서 테일 구문이 한국어 번역에서 유지되지 않은 이유는 한국어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거나 번역자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한국어에서 테일이 자주 사용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한 가지 이유로는, 테일 구문의 경우 핵-후행(head-final) 언어라는 한국어의 특성 때문일 수도 있다. 즉, 한국어는 모든 문장이 동사가 끝나야 하는데, 테일의 경우에는 테일 뒤에 다시 동사를 덧붙여야 하고, 그렇게 할 경우 문장이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다. 구조적 등가성을 다소 무시하더라도 한국어 구조에 맞게 번역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ST에 나타나는 테일 구문의 구조를 변형하여 번역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www.kci.go.kr

참고문헌

김창석(역) (1998)『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 서울: 국일 미디어.

Cole, Peter (1974) 'Backward pronominalization and analogy'. *Linguistic Inquiry* 5(3): 425-443.

Delisle, Gilles L. (1973) *Discourse and backward pronominalizatio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Hinds, John and Nobuo Okada (1975) 'Backward pronominalization across coordinate structures', *Linguistic Inquiry* 6(2): 330-335.

Kuno, Susumu (1987) *Functional syntax: Anaphora, discourse, and empath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andendoen, D. T. (1969) *The syntax of syntax: The generative-transformational approach to the structure of American English,*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Moncrieff, C.K. Scott and Terence Kilmartin (1982) *Remembrance of things past, Swann's way within a budding grove* vol. 1, New York: Random House.

Proust, Marcel. (1913/1987) *A la recherche du temps perdu* vol. 1, *Du côté de chez Swann*, Paris: Bouquins.

_____. 2012. *A la recherche du temps perdu* (édition complète, 10 tomes, augmentée, illustrée et commentée) [Kindle Edition], Print Length: 2911 pages, Published by Humanis (April 23, 2012).

www.kci.go.kr

[Abstract]

On the Head-Tail Constructions in Translation: In Case of *A La Recherche du Temps Perdu*

Jang, Youngjun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mpare the English translation and the Korean translation of *A la cherche du temps perdu* written by Marcel Proust. In particular, this article discusses the translation of so-called head-tail constructions in the translated version. In the original work *A la cherche du temps perdu,* the head-tail constructions appear 13 times in the volume one *Du côté de chez Swann.* These head-tail constructions are generally kept in terms of the structure in the English translation, unlike in the Korean translation. This paper finds that Korean translation employs different strategy for translating head-tail constructions used in the source language. A speculation has been made in this article that the head-final characteristics of Korean may not allow frequent use of the head-tail constructions.

▸ Key Words: head-tail, temps perdu, empathy, translation, Proust, French-English

장영준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yjang@cau.ac.kr
관심 분야: 번역이론, 영한번역, 성경번역사

논문투고일: 2013년 10월 30일
심사완료일: 2013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15일

www.kci.go.kr